

# 상권·트렌드 등 꼼꼼 분석... 소상공인 경영환경 향상 지원

내년 '소상공인 365' 정식서비스  
소진공,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국세청과 940만개 사업자정보 담  
상권지도·배달 현황정보 등 확인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 시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진공

카페, 음식점 등 예비창업자가 성공 창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새해에 본격 선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1일부터 '소상공인365'를 정식 서비스한다.

이는 2006년부터 18년간 제공하던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권분석, 경영진단, 소상공인 통계 등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특히 국세청과 협업을 전국 940만개 사업자 정보를 관련 플랫폼에 담았다.

데이터 종류도 42개, 11종(상가, 유동인구, 매출 등)에서 64개, 22종(POS, 배달 등 추가)으로 늘렸다.

소진공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연회'를 개최했다.

소진공 빅데이터실 송하령 실장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365'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올가이드, 소상공인대시보드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간단분석, 상세분석 등 다양한 지역·업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인구, 매출에 따른 상권지도 및 배달현황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소상공인 개별 점포의 경쟁 상태,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을 분석한다. 또한,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데이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회식 상권, 배달 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의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송하령 실장은 "민간도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임대료, 권리금 등 부동산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정도의 공신력있는 데이터 확보가 힘들어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에는 하루 1만명, 한 달에 약 30만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365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용객은 1만7000~1만8000명까지 늘고 있다.

송 실장은 "내년에는 AI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진공은 정책 이용자들이 정보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대표번호를 '1533-0100'으로 통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신규 지원을 위해 예산 2037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배달료 지원은 O2O플랫폼사, 택배사 및 직접 배달·무등록배달원을 활용하는 꽃집,

수퍼, 떡집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용자 '상생성장자금' 1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외에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중국 상하이에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열어 해외판로 확대 지원도 추가로 나선다.

박성호 이사장은 "소상공인365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수평적 연대를 확대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이사장은 최근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런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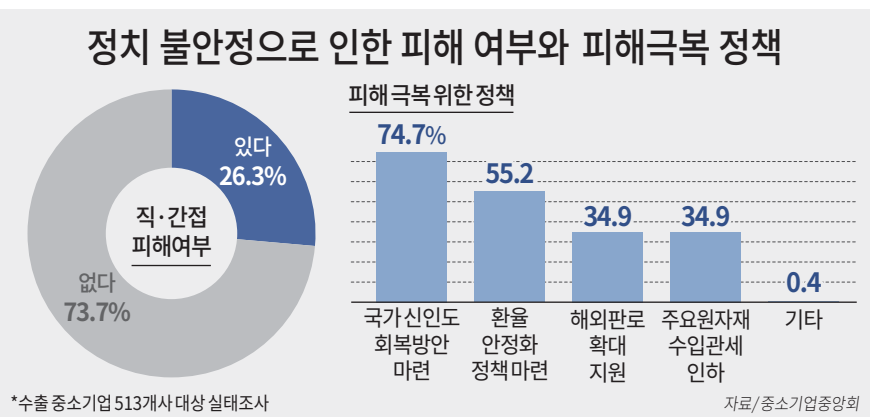
## 수출 中企 10곳 중 3곳 "비상계엄령 이후 피해입어"

중기중앙회, 513곳 실태조사  
47.4% '계약 지연 및 감소·취소'  
기업 63.5% '향후 피해 가능성'

"3일 비상계엄령 이후 바이어가 있는 나라에서 한국을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계약을 미루자는 요청이 왔다.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바이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공장은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부산에 있는 A제조사)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 정치 상황 불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 실시해 1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6.3%가 계약사태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계약 지연 및 감소·취소'가 47.4%



로 가장 많았고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 (23.7%), '수·발주 지연, 감소 및 취소' (23%),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 (22.2%) 등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아직 피해는 없지만 '향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63.5%였다. 이는 '피해 가능성이 없다' (36.5%)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복 청주에 있는 B제조사 관계자는 "논의 중이던 계약에 대해 12월3일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국내 여건으로 바이어들이 계약시 선지급금 지불을 꺼려하고 있어 이로 인해 회사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현재와 같은 국내경제 불확실성 예상 지속 기간에 대한 '6개월 이내'가 49.3%

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1~2년 간 지속 (32.2%) ▲2년 이상 장기화(8.2%) ▲올해까지만 지속(7.4%)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피해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 해명한다'는 답변이 51.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새로운 바이어 발굴 노력' (13.3%), '피해를 감수하고 계약 대안 제시' (8.8%) 등이었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변도 25.5%로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국가 신뢰도 및 이미지 하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여파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며 "급격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회, 정부, 중소기업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삼성벤처투자 등 총 5곳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우리벤처파트너스·교보증권, 삼성벤처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에코프로파트너스·현대차증권,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엔에이치벤처투자가 포함됐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이 주도해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지원하는 팁스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성장까지 전과정을 기업과 함께한다. 2021년 11월부터 투자와 기술지원 부문으로 구성된 총 19개 운영사 컨소시엄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스케일업 팁스에 글로벌 트랙이 신설되는 등 프로그램 강화에 따른 운영사 역할을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도전적·혁신적 과제에 20억원 이상을 선행투자하고 기업의 글로벌 협력까지 지원하는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의 지원규모가 기존 10개 내외에서 내년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운영사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엔 12대 국가전략기술, 10대 초격차 분야, 탄소중립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투자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사업 지원 역량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선정 컨소시엄 중 우리벤처파트너스, 교보증권 등은 금융 솔루션 제공으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스타트업 팁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기업 발굴과 육성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충청지역 기술창업기업 추가 지원

하나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특별출연금 8억, 160억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충청지역에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을 추가 지원한다.

기보는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지역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청지역 소재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장 및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원을 재원으로 총 16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용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2%p ↓, 3년간)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해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청년문간 조합에 2.7억 상당 기부

스타트업 220개사 구성 모임

청년창업 교류회(JBN) 소속 스타트업 73개사가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참여 확대를 위해 기부활동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울동남부지부와 청년창업 교류회가 18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필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교류회는 중진공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스타트업 220개사로 구성된 모임이다. 소속 기업들은

중진공을 중심으로 창업 관련 정보와 경영 노하우 공유, 비즈니스 매칭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2017년 시작한 '청년밥상문간'을 통해 저렴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과 청년 영화제를 통해 창의적인 도전과 세대 공감을 지원하며 청년들과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